



U-20 축구 30년만에 ‘4강신화’ 도전

20세 이하 월드컵 터키서 개막... 한국 오늘 밤 자정 쿠바와 1차전

이광종 감독이 이끄는 한국 청소년 대표팀이 터키에서 열리는 국제축구연맹(FIFA) 20세 이하(U-20) 월드컵에서 1983년 멕시코대회 당시 이룩한 ‘4강 신화’에 다시 한번 도전한다.

이번 대회 조별리그 B조에서 한국은 21일 자정(한국시간) 쿠바와의 첫 경기를 시작으로 25일 오전 3시 포르투갈, 27일 오후 11시 나이지리아와 결전을 치른다.

조별리그에서 조 1, 2위를 차지하면 16강 진출이 자동 확정되며, 3위에 오르면 각 조 3위 총 6개 팀 중 성적이 나은 4팀에 들어야 16강에 오른다.

이광종 감독은 조별리그 중 쿠바와의 1차전이 대회 성적을 좌우할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대회 첫 경기일 뿐 아니라 다른 조별리그 상대팀에 비해 쿠바가 수월할 것으로 평가돼 승점 3을 반드시 따야 한다는 것이 그의 판단이다.

김현, 김승준(송실대), 조석재(건국대)가 최전방

공격수를 놓고 다투는 가운데 이광종, 강상우(경희대) 등이 측면에서 이들을 받칠 것으로 보인다.

미드필더로는 권창훈(수원), 김진우(울산대) 등이, 포백에는 지난해 아시아 대회에서 호흡을 맞춘 심상민(중앙대), 송주훈(건국대), 연제민, 우주성(중앙대)이 선발 후보로 꼽힌다. 골키퍼 장갑은 ‘캡틴’ 이창근의 몫이 될 가능성이 크다.

쿠바는 U-20 월드컵에 처음 출전하는 ‘미지의 팀’이다.

이번 월드컵 지역예선인 북중미카리브해 축구연맹(CONCACAF) U-20 선수권대회에서는 4위에 올라 처음으로 U-20 월드컵 출전권을 따냈다.

월드컵에 출전하는 선수 전체가 국제적으로 잘 알려지지 않은 자국 리그에서 뛰고 있다는 점도 생소함을 더한다. 북중미 예선에서 3골을 터뜨린 스트라이커 마이켈 레예스 등이 경계대상으로 꼽힌다.

이어지는 상대들은 성인 무대에서 ‘축구 강호’로

A조	B조	C조
스페인	한국	콜롬비아
가나	나이지리아	호주
미국	쿠바	엘살바도르
프랑스	포르투갈	터키
D조	E조	F조
멕시코	이집트	뉴질랜드
그리스	이라크	우즈베키스탄
파라과이	칠레	우루과이
말리	잉글랜드	크로아티아

유명한 팀들이다.

유럽의 맹주인 포르투갈은 지난 대회 결승까지 올랐으나 브라질에 져 준우승했다. 통산 우승은 2회(1989, 1991년). 이번 대회에는 지난해 유럽축구연맹(UEFA) U-19 선수권대회에서 조별리그 3위에 올라 출전을 확정했다. 측면 공격수 브루마와 센터백 디아구 일로리 등이 대표적인 선수다.

나이지리아는 아프리카 U-20 선수권대회 3위에 올라 월드컵에 나섰다. 2005년 대회 준우승을 차지한 나이지리아는 2011년 8강에 드는 만만치않은 저력을 보여왔다. 주장을 맡은 공격형 미드필더 압둘 자쿰과 스트라이커 아미누 우마르 등을 앞세워 대국 전사와 맞선다.

한편 U-20 월드컵은 FIFA가 주관하는 월드컵과 17세 이하(U-17) 월드컵, 컨페더레이션스컵과 함께 세계 4대 축구 축제로 꼽힌다. 원래는 ‘세계 청소년축구 선수권대회’라는 이름으로 불리다가 2007년 대회부터 ‘U-20 월드컵’으로 바뀌었다. 한국 청소년 대표팀이 거둔 역대 최고 성적은 4강 진출(지난 1983년 멕시코 대회)이다.

K리그 올스타전, 1·2부 자존심 대결

오늘밤 7시 서울 월드컵경기장... 기성용 등 해외파 출전



K리그를 대표하는 별들이 서울월드컵경기장 그라운드를 축구 열기로 달군다.

2013 K리그 올스타전이 21일 오후 7시 서울월드컵경기장에서 화려하게 펼쳐진다. 이번 올스타전은 K리그 출범 30주년과 승강제 도입을 기념해 1부리그 ‘팀 클래식’과 2부리그 ‘팀 챌린지’의 맞대결로 전개된다.

통산 5번째 올스타에 도전하는 전북의 이동국을 비롯한 데얀(서울), 정대세(수원), 김남일(인천), 이근호(상주), 김신욱(울산), 염기훈·정조국(이상 경찰) 등의 스타선수들이 한판 승부를 앞두고 있다.

광주의 수비 중심 임하람이 처음으로 올스타전 무대를 밟고, 전남의 수문장 김병지는 14번째 올스타전 출전을 앞두고 있다.

K리그를 발판 삼아 해외 무대에 진출한 기성용(스완지시티), 윤석영(퀸스파크레인저스), 이창용(볼턴), 구자철(아우크스부르트)도 올스타전을 찾아 ‘팀 챌린지’ 유니폼을 입는다.

‘캡틴’ 박지성(퀸스파크레인저스)도 경기를 찾아 올스타전 열기를 더한다. 박지성은 2002 한일 월드컵 10주년을 기념해 열렸던 지난해 올스타전에서는 히딩크 감독과 10년 만의 포옹 세리모리를 재현했었다.

축제의 흥을 더할 다양한 팬 이벤트도 준비됐다.

오후 5시30분부터 서울 월드컵경기장 북측 광장에서 김남일, 이동국, 차두리(서울), 이근호, 염기훈, 정조국이 참가하는 팬 사인회가 열린다.

K리그 골키퍼를 상대로 직접 슛을 할 수 있는 ‘골키퍼를 뚫어라’ 행사도 진행된다.

하프타임에는 팬 투표 등을 통해 선정된 최순호, 황선홍, 신태웅, 김태영 등 ‘대전드베스트 11’을 기념하는 축하 무대가 마련된다.

이동국의 5번째 MVP 도전은 이번 올스타전의 관심사다. 올해로 20번째를 맞는 올스타전에서 2회 이상 MVP를 받은 선수는 이동국이 유일하다.

1998년 ‘루키’ 이동국(당시 포항)은 올스타전에서 두 골을 터트리며 MVP의 주인공이 되는 등 역대 최다인 4차례 MVP에 선정되면서 ‘미스터 올스타’로 자리를 굳혔다. 또 올 시즌까지 13번 올스타에 선정되면서 ‘별들의 잔치’ 단골 손님이다.

한편 지난 2000년 골키퍼로는 유일하게 MVP를 수상한 김병지(당시 울산)는 올 시즌 포항 14번의 올스타전으로 최다 출전 기록을 지키고 있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광주 FC, 시민들과 함께

상무시민공원에서 걷기대회

올스타전 휴식기를 맞은 광주 FC가 시민들과 함께 걷는다.

광주 FC 선수들이 22일 상무 시민공원에서 열리는 2019 세계 수영선수권대회 유치기원 시민 한마음 걷기대회에 참여해 시민들과 함께 한다.

광주는 이번 행사에 참가해 시즌 초반 부진한 성적 속에서도 뜨거운 응원을 아끼지 않은 시민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할 예정이다.

선수단은 이날 오전 10시부터 1시간여 동안 박병주, 마철준, 박희성, 황지준이 참여하는 팬 사인회를 개최하며, 나머지 30여 명의 선수단은 오전 11시부터 시민들과 함께 공원 일대를 걸으며 마음을 나눈다.

광주 관계자는 “시즌 초반 부진한 성적에도 끝까지 믿고 응원을 보내 준 팬들에게 보답할 수 있는 것은 성적과 스किन십”이라며 “지역활동에 적극 동참해 구슬땀을 흘리고 함께 생각을 나누고 싶다. 앞으로 기회가 된다면 다양한 활동에 적극 동참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이승엽 352호포!

한국 프로야구 통산 최다 홈런 신기록



20일 문학구장에서 열린 SK와의 경기에서 삼성 이승엽이 4회 1·3루 윤희상을 상대로 좌중월 3점포를 쏘아올리며 한국프로야구 통산 최다 홈런 신기록(352개)을 세우고 있다. /연합뉴스

‘아시아의 홈런왕’ 이승엽(37·삼성)이 통산 352호 홈런을 쏘아 올려 한국프로야구 통산 최다 홈런 신기록을 작성했다.

이승엽은 20일 문학구장에서 열린 SK와 이번스와의 원정 경기에 4번 타자겸 1루수로 선발 출전, 1-1이던 3회 1사 1,3루에서 SK 선발 투수 윤희상의 5구째를 받아쳐 좌측 펜스를 훌쩍 넘겼다.

지난 15일 NC 다이노스전에서 통산 351번째 홈런을 날려 양준혁 SBS 해설위원이 보유했던 통산 최다 홈런 타이 기록을 세운 이승엽은 이후 3경기만에 시즌 7호 홈런을 터뜨려 통산 최다 홈런 타이틀의 새 주인이 됐다. 이승엽은 이날 지난해 7월 1일 대구 넥센전에서 4번 타자로 나선 이래 354일 만에

다시 4번 타순으로 올랐다.

첫 타석에서 올라 1루수 팽볼로 물러난 이승엽은 두 번째 타석에서 곧바로 홈런포를 쏘아 올렸다.

3회 최형우의 1타점 적시타로 동점이 된 상황에서 이승엽은 볼 카운트 2B-2S에서 윤희상의 5구 시속 143km짜리 높은 직구를 결대로 밀어쳐 좌중간 스탠드에 꽂았다.

이승엽은 1995년 5월 2일 광주 해태(KIA의 전신)전에서 데뷔 첫 홈런을 때린 이래 지난해까지 한국에서 뛴 10년간 345방의 대포를 쏘아 올렸다. 8년의 일본 무대에서 기록한 홈런 159개를 보태 이날까지 한일 통산 홈런 511개. 이는 역대 한국 타자가 프로에서 터뜨린 가장 많은 홈런이기도 하다. /연합뉴스

잘 나가는 외국인 투수

호랑이 만나면 ‘와르르’

8개구단 16명 용병 KIA전 31번 등판해 고작 8승 챙겨



프로 야구에는 팀과 팀, 선수와 선수 사이의 ‘천적 관계’가 있다. 특정 선수 혹은 특정 팀 만 만나면 특급 선수로 돌변하는 경우들이 있다.

올 시즌 KIA에게는 ‘외국인 투수’ 천적 관계가 만들어지고 있다. 만나기만 하면 불방망이를 휘두르는 KIA타자들에 외국인 투수들이 몰상이다.

두산 올슨을 제외하고 8개 구단 16명의 외국인 투수가 31번의 KIA전에서 거둔 승수는 8승. 반면 패전투수가 된 경우는 17번이나 된다. 이들의 KIA전 방어율은 4.45다.

지난 19일 KIA전 선발로 나선 한화 이브랜드는 1회부터 곤혹을 치렀다. 톱타자 이용규의 ‘용구 놀이’에 경기 시작과 함께 13개의 공을 던졌고, 결과는 좌전안타. 이어진 김선빈의 내야안타와 나지완의 희생플라이로 1점을 내줬다.

1-2로 뒤진 5회에는 이범호에게 스리런포를 얻어맞는 등 5.1이닝 동안 13피안타로 5실점을 기록하며 패전투수가 됐다. 앞선 5월 21일 등판에 이어 다시 패전 투수가 된 이브랜드는(5.94)의 KIA전 방어율은 9.31까지 뛰어올랐다.

올 시즌 단 1승을 거두는데 그친 이브랜트 뿐만 아니라 지난해 ‘방어율왕’ 나이트(넥센)에게도 KIA는 만나면 괴로운 상대다. 지난 시즌 나이트의 KIA전(4경기) 방어율은 1.86이었던 올 시즌에는 10.05까지 뛰어올랐다. 지난 9일 목동 경기에서도 나지완에게 투런포를 허용한 뒤 내야의 실책 퍼레이드까지 더해 6이닝 6실점(4자책)을 기록하는 등 3경기 등판에서 승없이 2패만 남겼다.

1.98로 방어율 선두자리를 지키고 있는 SK의 특급 좌완 세든에게도 나이트의 처지가 남의 일 같지 않다.

세든은 올 시즌 KIA전 3번의 등판에서 공교롭게도 모두 양현종을 만났다. 3번의 맞대결에서 양현종이 2승, 세든이 2패를 나눠가졌다.

앞선 15일 광주경기에서는 초반 양현종의 난조 속에 4회까지 3점의 리드를 잡고도 패전투수가 됐다. 5회 김주형에게 장외를 넘어가는 커다란 투런포를 맞으며 흔들린 세든은 김주현에게 2타점 2루타를 내주며 역전을 허용했다. 결국 5.1이닝 5실점으로 다시 또 패전 투수가 됐다.

선발투수들이 느긋하게 경기장에 나오는 게 일반적이지만 세든은 이날 당한 덕아웃에서 이른 저녁을 먹으며 KIA 타자들의 훈련을 지켜보는 열성까지 보였다. 그러나 4월 21일 문학경기장에서 0-0으로 맞선 5회 최희섭과 김성현에게 연달아 홈런포를 내주며 패전투수가 됐던 세든은 이번에도 홈런에 올랐다.

LG의 강속구 투수 리즈도 3번의 도전에도 아직 승리를 거두지 못하며 2패를 더했다. 롯데 옥스포프는 유일하게 KIA에게 2승을 가져간 투수다.

첫 등판에서 6이닝 3실점(2자책)으로 켈리스타트를 기록했던 옥스포프는 5월7일에는 KIA 타자들을 상대로 한국에서의 첫 완봉승을 장식하는 등 2.14의 방어율로 2승1패를 기록하고 있다.

한편 두산 니퍼트·NC 찰리가 나란히 7이닝 무실점으로 한 차례 등판에서 승리투수가 됐고, 바티스타·벤체넬·유먼도 패와 승을 나눠씩 기록하고 있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